

울산 동구, 화정공원에서 8·15 광복절 기념 행사

등록 2020-08-14 15:31:29



0

[울산=뉴스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15일 화정공원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행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구에서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서진문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추모하고, 항일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보훈·안보단체장 및 회원 등을 초청해 진행한다.

식전 독립유공자 서진문선생의 묘역 앞 헌화와 참배를 시작으로 김영자 무용단의 식전공연, 국민의례, 기념사, 서진문 모 사건 모노드라마, 경축공연,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주최한 동구문화원은 구민의 안전을 고려해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구 지역의 독립운동 활동과 독립운동가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동구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서진문 선생의 묘가 있는 화정공원에서 기념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또 항일운동의 터전 보성학교 설립자인 성세빈 선생의 공적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